

“목숨을 걸어 지키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다”



광주글로벌모터스 준공 기념행사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에서 열린 준공 기념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다음달 3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오늘 발표 가정의 달 특별 방역 내용 마련

5월3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월30일 발표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9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열고 “어제(28일) 생활방역위원회가 있었고 오늘(29일) 지자체, 부처 회의가 진행 중”이라며 “의견들을 모아서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해 거리두기 단계 조정 내용들을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다. 정부는 4월12일부터 5월2일까지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고 있다. 이 기간 수도권과 부산 지역의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했다. 정 청장은 현 유행 상황에 대해 “아주 급증세는 아니지만 매주 평균 50명 정도 증가하고 있다”라며 “특히 수도권과 경남권 지역을 중심으로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29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650명, 1주 평균 638.4명이다. 1주 평균 확진자 수는 지난 12일부터 18일째 600명대로 집계됐다. 정부가 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따르면 1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400-500명일때 2.5단계 격상을 검토할 수 있다. 정 청장은 “그동안 코로나19 유행이 발생했던 다중이용시설에서도 광범위하게 확산이 되고 있다”라며 “최근 들어서는 교회를 통한 전파도 증가하고 있고 사업장, 콜센터, 제조업, PC방, 학원 등 사람이 만나서 접촉할 수 있는 모든 공간에서 대부분 유행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정부는 이번 주 특별방역관리기관으로 설정하고 공공부문의 회식이나 모임 등을 금지하면서 국민들의 방역 수칙 참여를 독려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이 포함된 5월 가정의 달에 맞춰 방역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 청장은 “5월 특별 방역 조치 내용을 마련하겠다”라며 “다시 기본으로 돌아갈 때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착용과 5인 이상 집합 금지,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불요불급한 모임은 자제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기동취재본부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토요일은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광주형 일자리’ 첫 결실 23년만에 완성차 공장 준공

광주 빛그린산단 GGM 준공...908명 고용 계획 오는 9월부터 경형 SUV 출시...연간 7만대 생산

국내 첫 노사 상생형 일자리의 ‘광주형 일자리’의 성과로 23년 만에 국내 완성차 공장이 준공됐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광주 빛그린산단 내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공장에서 준공 행사가 열렸다. 지난 2019년 1월 지역 노·사·민·정은 적정 근로조건 및 동반성장 등에 대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2년3개월 만에 GGM 공장을 준공했다. 당시 노·사·민·정은 ▲근로자 평균 초임 연봉 3500만원 ▲노동시간 일 8시간, 주 40

시간 ▲협력사 공정거래와 상호 경쟁력 강화 지원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한 소통 등에 합의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시, 현대차 등이 3년간 5754억원을 투자해 내년까지 정규직 일자리 908개(간접 1만1000개)를 창출하는 것이 골자다. 국내에 완성차 공장이 준공된 것은 1998년 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준공 이후 23년 만이다. 광주시 제조업에서 자동차 산업 비중이 절반(2018년 기준 49.2%)에 달하는 만큼 지역경

제 활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공장은 오는 9월 중 1000cc급 경형 스포츠유틸리티(SUV) 기술을 탑재한 차량을 출시할 예정이다. 현대차가 개발한 제품을 GGM 공장에서 위탁생산하는 형태다. GGM은 차체 설비와 조립 설비를 100% 국산화해 장비 경쟁력을 갖추고, 스마트 공장 운영관리 및 공정 최적화로 원가 경쟁력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1만대 정도를 생산할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부터는 정상 가동 시 연간 7만대에서 최대 10만대까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연한 생산라인으로 필요 시 전기차 등으로 차종 생산을 전환할 수 있어 미래차 전환도

대응할 수 있다. GGM 공장은 현재 380명가량의 정규직을 이미 고용했고 5월쯤 150명이 새로 들어온다. 내년에 2교대 인원으로 선발하면 정규직 908명 채용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 타결 이후 상생형 지역일자리 대책 수립,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 구축에 나서왔다. 현재까지 총 8개 지역에서 상생협약을 체결했고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최종 선정된 5개 지역은 세제 혜택, R&D(연구개발) 지원 등을 받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영암군 “간척지 태양광 건설, 우량농지 축사 신축 안된다”

군의회, 인허가 기준 강화 ‘도시계획 조례안’ 의결

영암군이 간척지 내에서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과 우량농지에서의 축사 신

축 등을 사실상 차단했다. 영암군의회는 29일 제28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정의당 김기천 의원이 수정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지 발전사업과 축사 인허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영암군이 입법예고 등을 거쳐 골격을 마련하고, 김 의원이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김 의원은 조례안 수정 발의를 통해 간척지 내에서의 ‘비법정 도로’(경작도로)도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제한을 적용받도록 했다. 영암군은 이번 조례 개정안에 주거밀집지역 기준을 10호에서 5호로 확대하고, 도로와의 이격거리도 100m 이내에서 500m로 이내로 상향했다.

영암=조대호기자

2017 제2회 곡성군 소셜미디어 사진공모전 입선작 김정현-침실습지의 부드러운 아침물결

공모기간
21. 3. 15. 월 - 6. 30. 수

발표일 2021. 7. 16. (금)

참여자격 전국민 누구나

시상안내 18명 선정 / 총 상금 4,000,000원
작품 수준 미달시 아차상 취소 가능

발표안내 홈페이지 및 군 공식 블로그 게재 (개별 연락)
https://blog.naver.com/gokseong_love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1부
사진 원본파일(3MB 이상)
곡성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제출방법 이메일과 우편접수
이메일 : sangyu100@korea.kr
우편 :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미래혁신과 스마트홍보팀



#랜선곡성여행

제5회 곡성군 소셜미디어 사진공모전

PHOTOGRAPHY

곡성군

#관내사찰 #제월섬
#섬진강기차마을장미정원 #섬진강무릉도원

